

# 국회도서관장 전문가 임명 정책 의제화 과정 분석

-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을 적용하여 -

## An Analysis of Agenda-setting Process to Appoint Library Professional as the Director of National Assembly Library: Based on the Kingdon's Multiple Streams Model

연 지 은 (Jieun Yeon)\*

김 기 영 (Giyeong Kim)\*\*

### 목 차

- |            |               |
|------------|---------------|
| 1. 서 론     | 4. 연구대상 분석 결과 |
| 2. 이론적 배경  | 5. 논 의        |
| 3. 연구대상 개요 | 6. 결 론        |

### 초 록

본 연구의 목적은 2014년 국회도서관장 전문가 임명 정책의 의제화 과정을 대상으로,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을 적용하여, 이 정책이 의제화된 과정과 함께, 정책을 지속적으로 지지한 정책선도자의 특성을 밝히는 것이다.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은 비합리적 의사결정모형으로, 문제흐름, 정치흐름, 정책흐름이 상호독립적으로 존재하다가 특정 시점에서 결합하여 정책의 창이 열림으로써 정책이 의제화된다는 모형이다. 분석 결과 국회도서관 전문가 임명을 둘러싼 세 흐름 중 정책 의제화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은 정치흐름으로 나타났으며, 야당 소속의 국회의원을 정책선도자로 확인하고, 그 동기 및 자원, 전략을 분석하였다. 나아가 이 정책의 의제화 과정에서 도서관계의 가시적인 활동이 확인되지 않은 가운데 의제화가 성공했다는 점을 바탕으로 도서관정보정책에서의 도서관계의 역할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 ABSTRACT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identify the background of the agenda-setting to appoint library professional as the director of National Assembly Library and characteristics of the policy entrepreneur of this agenda. To this purpose an agenda-setting process in 2014 is analyzed with the Kingdon's multiple streams model. Kingdon's multiple streams model explains that an agenda is set when a window of opportunity is opened by coupling of problem stream, political stream, and policy stream. They have existed independently before setting the agenda. This study showed that the political stream was the major stream to open the window of opportunity. The lawmaker in the opposition party is identified as the leader for the agenda and the motivations, resources, and strategies of the policy entrepreneur were also analyzed. The analysis showed the agenda for library professional as the director was set without visible participation of library professionals. Therefore this study proposed the library professionals' roles for the library and information policy making process.

키워드: 도서관정보정책, 국회도서관, 도서관장, 다중흐름모형, 정책선도자

Library and Information Policy, National Assembly Library, Library Director, Multiple Streams Model, Policy Entrepreneur

\* 연세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석사과정(wingspan@yonsei.ac.kr) (제1저자)

\*\* 연세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조교수(gkim@yonsei.ac.kr) (교신저자)

논문접수일자: 2017년 7월 17일 최초심사일자: 2017년 7월 17일 게재확정일자: 2017년 8월 24일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1(3): 293-322, 2017. (<http://dx.doi.org/10.4275/KSLIS.2017.51.3.293>)

## 1. 서론

우리나라의 국회도서관은 국회의 입법활동 지원과 국회 이외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교육연구기관과 공중에 대해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기관이다. 비록 도서관법 상의 국가대표도서관은 국립중앙도서관으로 정해져 있지만, 국회도서관 역시 국가가 설립 운영하며 봉사범위가 전 국민에 이르며 국가문헌 수집, 납본 등의 의무가 국회도서관법에 규정되어 있어 국가도서관에 준한다고 볼 수 있다.<sup>1)</sup>

국가도서관 사무를 총괄해야 하는 관장직임에도 불구하고, 2014년까지 국회도서관은 물론 국립중앙도서관의 관장의 경우도 사서 출신 및 문헌정보학 전공자는 한 명도 임명된 예가 없었으며, 대체로 정치인이나 관료 출신이 관장직을 맡아왔다. 국가도서관장 자격에 대한 법적인 규정이 없는데 반해, 공공도서관 관장은 도서관법 제30조제1항에 의해 사서직으로 임명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2015년 국가도서관 통계에 따르면 전체 공공도서관 중 45.8%가 사서직 관장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사서 출신 도서관장이 비사서 출신에 비해 직무 수행에 더 적합한지에 대해 국내 상황에서의 실증 연구는 많지 않지만(정현태 2004), 여러 국내외 도서관 리더 역량에 대한 연구에서 도서관 실무에 대한 지식이나 전문적 능력을 제시하고 있어 도서관에 대해 전문적 교육을 받은 도서관장에 대한 필요는 일정 정도 공감을 얻고 있음을 알

수 있다(오지은, 정동열 2016; Hernon, Powell and Young 2003; Haycock 2011).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도서관장에 사서 출신 혹은 문헌정보학 전공자가 임명되지 않았다는 것은 전반적인 도서관계의 분위기와 상반되는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던 중 2014년 말, 최초로 국회도서관장에 문헌정보학과 교수 출신 인사가 임명되었다. 이 임명의 배경에는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통합당 국회의원의 지속적인 노력이 있었다. 그는 2013년 초부터 지속적으로 정책제안, 성명서 발표와 같은 활동을 통해 당 내외의 의원들을 설득하는 노력을 기울였고, 2014년 말에 이르러 국회도서관장 추천위원회를 통해 국회도서관장 임명이 이루어졌다.

본 연구는 국회도서관장 임명 관행이 50년 가까이 이어져 오던 중 2014년에 국회도서관장 전문직 임명에 대한 정책이 어떻게 의제화 되었으며, 주요 행위자의 특성은 어떤 것이 있는지를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Multiple Streams Model)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따라서 국회도서관장 임명의 의제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흐름들을 모형에 따라 각각 살펴보고, 정책선도자의 동기, 특성, 전략을 파악하여 정책 의제화가 가능했던 원인을 알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국회도서관장 전문직 임명 정책이 본 연구에서 파악된 정책선도자에 의해 적극적으로 추진된 2013년과 2014년으로 설정하였다. 구체적으로는 2012년 12월 제18대 대통령선거부터 2014년 10월 새정치민

1) 국가도서관은 “국가가 설립 운영하며 봉사범위가 전체 국민에 이르는 도서관. 국가도서관의 기능은 나라의 여건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대체로 국가문헌의 수집, 납본, 문헌의 국제교환, 국내 도서관들에 대한 지도 및 지원, 국가서지간행, 서지정보서비스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도서관을 의미한다(문헌정보학용어사전 편찬위원회 2010).

주연합 정치혁신실천위원회에서 국회도서관장 추천위원회 구성이 의결된 시점까지를 연구 범위로 하였다. 분석을 위해서는 공식적인 자료 및 공개된 자료를 주로 활용했다. 자료에는 제시한 시간적 범위 내에 생산된 뉴스 기사, 정당 홈페이지, 법률, 법개정안, 간담회 자료, 여론조사 결과, 브리핑 영상 등과, 2017년 6월 14일 실시된, 정책선도자인 원혜영 의원과의 서면 인터뷰를 포함하였다. 일부 관련이 있는 사례를 살펴보기 위해 제시된 시간 범위 외의 사건을 다룬 자료도 참고하였다.

## 2. 이론적 배경

### 2.1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Multiple Streams Framework)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은 Cohen-March-Olsen의 쓰레기통 모형을 바탕으로 모호한 상황(conditions of ambiguity) 속에서 정책 의제화와 대안 산출이 이루어지는 현실적인 과정을 설명하고자 개발된 모형이다. 이 모형은 합리적 의사결정 모형과 달리, 개인은 시간의 제약을 받으며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정보 양도 제한되어 있다고 가정한다. 또한 점증주의 모형은 이러한 비합리적 정책 결정 과정을 일부 설명할 수 있지만 갑작스러운 의제 변화를 설명할 수 없는 반면, 다중흐름모형은 상호독립적인 문제흐름(problem stream), 정치흐름(political stream), 정책흐름(policy stream)이 어떠한 특별한 상황에서 결합해 급격한 의제 변화를 낳는다고 설명한다(Zahariadis 2007; Kingdon and

Thurber 2011).

첫째, 문제흐름은 정책결정자나 시민들이 다루고 싶어 하는 다양한 상황(condition)들로 구성되어 있다(Zahariadis 2007). 이 잠재적 문제들 중 일부만이 지표, 초점사건, 피드백을 통해 정책결정자의 관심을 받아 해결해야 할 문제가 된다. 상황이 문제로 인식되는 과정에는 가치(value)와 신념(belief)이 연관되어 있는데, 상황이 사람들의 가치나 신념을 침해하는 경우 다른 국가나 시점과의 비교를 통해 문제화하기도 한다.

둘째, 정치흐름은 국가적 분위기, 이익 집단의 활동, 선거 결과, 정당 활동, 행정부 변화 및 특정 직책 인물의 변경 등을 의미한다. 정치흐름 중 국가적 분위기와 선거 결과는 정책 의제에 대해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Kingdon and Thurber 2011). 국가적 분위기는 특정 정책과 무관한 국가의 전체적 분위기를 의미하며, 정치인들은 언론 보도, 시민들이 전달한 의견 등을 통해 국가적 분위기를 감지하게 된다. 국가적 분위기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정책결정자들은 이에 부합하는 정책을 추진하고자 한다.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선거로 인한 정책결정자의 변화는 새로운 정책을 제안하기 좋은 기회를 제공한다.

셋째, 정책흐름은 관료, 의회 의원, 학자, 연구자 등으로 구성된 정책 커뮤니티에서 만들어진 아이디어들이 떠다니는 수프와 같은 상태로 표현된다(Zahariadis 2007). 정책흐름 내에는 동시에 여러 대안이 존재하며 때로는 정책 대안끼리 재조합되기도 한다. 그러나 수많은 정책 대안 중 실행 가능성(technical feasibility)과 가치정합성(value acceptability)이 높은 일부 대안

만이 살아남게 된다. 생존한 대안들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며, 그 과정에서 문제흐름과 긴밀히 연결되면 의제화 될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

각각의 규칙을 따르며 독립적으로 존재하던 세 개의 흐름은 특정 시점에 결합(coupling)하여 정책의 창(window of opportunity)을 열게 된다. Kingdon과 Thurber(2011)는 정책의 창을 “정책 대안 지지자들이 그들의 대안을 추진하거나 특정 문제에 대한 관심을 촉구할 수 있는 기회”로 정의했다. 정책의 창은 보통 긴급한 해결을 필요로 하는 문제로 인해 열리거나 정치흐름의 변화로 열리게 되며, 짧은 시간 동안만 열린 채로 유지된다. 문제흐름이나 정치흐름 만으로도 정부 관료와 그 관계자의 진지한 관심을 받는 정부의제(governmental agenda)를 만들 수 있으나, 정책의 창이 열려 세 흐름이 결합할 때 정부의제가 적극적인 정책 결정 대상인 결정의제(decision agenda) 수준으로 나아갈 수 있다.

정책선도자(policy entrepreneurs)는 세 흐름을 결합하기 위해 노력하고, 정책의 창이 열렸을 때 자신이 지지하는 정책 대안을 의제화하고자 하는 개인 혹은 집단이다. 정책선도자는 정부의 내·외부에 존재할 수 있으며 국회의원, 학계의 연구자, 직업관료 등 그 직책에는 제한이 없다. 이들은 미래에 보답 받을 것을 기대하며 자신의 자원을 투입한다. 평소에는 정책의 창이 열리기를 기다리며 대중, 특정 집단, 정치 커뮤니티에 대해 자신이 지지하는 정책대안을 알리다가(softening up) 기회가 왔을 때 그 정책 대안을 추진하는 것이 정책선도자의 역할이다.

정책선도자의 다양한 속성 중, 정책선도자가 특정 대안을 옹호하는 동기는 지금까지의 연구에서 큰 관심을 받지 못한 부분이다(Mintrom and Norman 2009). Kingdon과 Thurber(2011)는 정책선도자는 소속 기관의 확대, 선거 승리 등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거나 자신의 이념(ideology) 혹은 가치(value)를 추구하기 위해 정책 과정에 참여한다고 제시하며, 일부의 정책선도자는 그저 정책 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즐긴다는 점을 밝혔다. Carter와 Scott(2004)은 외교정책선도자 역할을 하는 미국의회 의원들의 특성을 조사한 연구에서 정책선도자의 동기를 과거 경험, 가족 배경, 핵심 가치, 영향력 확대, 선거구의 이익, 당파심으로 제시했다. Cohen(2012)은 1994년 이스라엘의 국가보건법 형성 사례를 통해 정책선도자의 역할과 전략, 동기를 연구했는데, 이 연구에서는 정책선도자의 가장 큰 동기를 사익 추구로 보았다. 이 사례에서 정책선도자는 당시 이스라엘의 보건부장관으로, 자신이 속한 정당의 대표가 되기 위해 대규모 정책 입안에 나선 것으로 분석되었다.

정책선도자가 성공적으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조건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는데, 크게 조직적 및 개인적 자원과 전략으로 나눌 수 있다. 조직적 자원에는 소속된 집단 및 이를 이용한 네트워크가 속하고 개인적 자원에는 끈기, 지적 능력, 명성, 리더십 등이 있다. 전략으로는 상징화, 정서 점화(affect priming), 프레임링(framing), 살라미 전술(salami tactics)을 사용하여 정책 의제화를 시도한다(Mintrom and Vergari 1996; Zahariadis 2007; Kingdon and Thurber 2011).

## 2.2 국회도서관장 전문가 임명 분석에 대한 다중흐름모형 적용 필요성

본 연구의 대상인 국회도서관장 전문가 임명은 정치 상황의 변화, 특히 2014년 당시 야당이었던 새정치민주연합과 그 전신인 민주당 및 민주통합당의 상황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야당이 국회도서관장에 대해 임명권을 행사하는 것이 관례화 된 상황에서 2013년과 2014년에 걸쳐 국회도서관을 포함한 도서관계에서는 이에 대한 표면적인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새정치민주연합 당내 의사결정에 따라 국회도서관장에 문헌정보학 관련 인사가 임명된 것이다.

또한, 이 사례에서는 정책을 둘러싼 뚜렷한 대립 구조가 나타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정책 대안을 알리는 행위자만이 전반적인 정책 의제화 과정에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정책 대안의 대립보다는 정책 지지자가 형성하는 네트워크의 구성이나 관련 배경에 따라 정책이 조금씩 변화하는 양상과 여러 대안이 공존하는 모습이 드러난다. 이러한 사례의 특성을 고려할 때, 국회도서관장 전문가 임명 정책의 의제화 과정에는 정책과 정치 상황의 변화를 특정 행위자의 활동과 함께 분석할 수 있는 다중흐름모형의 적용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 2.3 선행연구

### 2.3.1 도서관장 관련 선행연구

국내외를 막론하고 국가도서관장에 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해외에서는 국가도서관장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진 사례가 없었

고, 국내에서는 윤희윤(2011)에 의해 국가도서관장의 전문성 제고 방안이 제시된 바 있다. 윤희윤(2011)은 국가도서관장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전문성이 필요함을 전제하였고, 그 근거로 해외 국가도서관장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 많은 국가도서관의 관장이 사서 혹은 저명한 교수임을 밝혔다. 그는 여러 국가와 달리 국내의 경우 국가도서관장 임명에 전문성이 고려되지 않는 점을 비판하며 개방형 직위제, 책임행정기관화, 정무직화, 법인화 등의 제도적인 해결책을 통해 관장의 전문성을 제고하자고 주장하였다.

대학, 전문, 공공도서관의 관장에 대한 연구는 주로 관장의 역할이나 자질에 대해 초점을 맞추었다. 장덕현, 이연옥, 윤진(2003)은 평사서의 관장에 대한 인식과 관장 스스로의 인식, 그리고 관장의 자질을 연구하여 평사서와 관장 모두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음을 발견했다. Harris-Keith(2016)는 설문조사를 통해 대학도서관 관장의 자질 중 향상시키기 어려운 자질을 조사했는데, 조직 내의 다양한 지도자 자리를 맡아야만 이러한 자질을 개발할 수 있고 평사서로 근무하면서는 리더십을 기르기 힘들음을 지적했다. 우리나라와 아시아권의 일부 연구에서는 사서 및 문헌정보학 전공자와 비전공자 관장의 차이를 드러내고자 했다. 오지은과 정동열(2016)은 자체 개발한 공공도서관장 리더십 역량요소를 관장이 가지고 있는지 관장과 평사서의 설문을 통해 알아본 결과, 사서자격증을 가진 관장이 상대적으로 높은 리더십 역량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모든 관장이 보통 수준의 리더십 역량을 가진다고 밝혔다. Minjie, Youneng 그리고 Nan(2016)은 홍콩과 달리 중

국, 대만의 대학도서관장은 도서관이나 문헌정보학과 무관한 경우가 많음을 지적하였다.

이상의 도서관장에 대한 기존 연구를 종합해 볼 때, 도서관장이 갖추어야 할 역량을 바탕으로 문헌정보학적 전문성을 가진 관장이 필요하다는 근거를 제시하는 연구나 그러한 관장을 임명할 제도적 방안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문헌정보학계의 인식과 달리 현실적으로 왜 문헌정보학 배경을 가진 관장이 대다수가 아닌지 그 원인에 대해 밝히려는 노력이나 사서 자격을 가진 관장의 임명 과정을 살펴보려는 연구는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

### 2.3.2 다중흐름모형을 적용한 선행연구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을 적용한 국내의 많은 연구에서는 세 흐름 중 정치흐름의 결정적 영향으로 인해 정책 의제화 및 산출이 이루어졌음을 지적한다. 특히, 대선 및 총선과 같은 선거를 거치며 정책의 창이 열리고 의제화 되는 경우가 연구들을 통해 발견되었다. 김명환(2010)은 원주시청사 이전후보지 선정사업 정책이 변동하는 과정에 지방선거라는 정치흐름이 큰 영향을 주었다고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 설정한 정책혁신가인 원주시장이 지방선거에서 당선됨에 따라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되어 정책의 창이 열렸다. 이지호(2012)는 기초노령연금정책의 의제화 과정과 정책 설정을 연구한 결과 의제화의 결정적 요인은 노인층의 표가 중요해졌다는 정치흐름으로, 당시 여당 정치인들이 노인층의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세 흐름을 결합시켰다고 주장했다. 전성욱(2014)은 기초연금제도는 2012년 대선과 새

정부 수립에 의해 정부의제가 되었으며 이후 2014년 지방선거를 의식하여 빠르게 채택되었음을 밝혀, 정책 과정에서 정치흐름의 영향이 강력하다는 Kingdon의 주장을 뒷받침하였다. 이렇게 한국에서 정치흐름의 영향이 큰 것을 제왕적 대통령제의 영향으로 이해하는 견해(권석천, 장현주 2015; 지은정 2016)와, 공식적 지위를 갖지 않는 정책공동체의 활동이 저조하고 정책 대안의 경쟁이 심하지 않아 상대적으로 정치흐름이 두드러진다는 견해(최성락, 박민정 2012)가 제시되었다.

한편, 다중흐름모형에서 독립적인 흐름들을 연결하는 역할을 맡는 행위자인 정책선도자에 대해, 많은 연구들에서는 공식적 직위를 가지고 있는 개인을 정책선도자로 파악하였다. 정우철과 우창빈(2015)은 치매특별등급제도의 정책변동 과정을 두 시기로 나누어 각 시기의 보건복지부장관을 정책선도자로 설정하였다. 그들은 정책선도자의 역량을 전문성, 공식적 권한, 교섭력, 추진력(의지)로 나누어 분석하여 정책변동의 성공이 정책선도자의 우수한 역량에 기인했다고 주장했다. 전영욱(2016)은 지자체의 학생인권 정책 추진에서 도의원이 정책선도자로 활동했으며, 자원 동원과 전략적인 정책 대안 변경을 통해 원하는 정책을 산출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분석했다. Cohen(2012)은 이스라엘의 국가보건법 정책 과정의 정책선도자로 보건복지부장관을 지목하여 그가 공통 이익을 바탕으로 한 지지 세력을 만드는 전략을 통해 정책 산출을 이끌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일부 연구에서는 정책선도자를 정당과 같이 광범위한 다수로 설정하거나, 대통령이나 장관과 같은 공식적 직위 측면만을 강조해 정책선도자의

동기, 전략, 역량과 같은 측면에 대한 분석이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김지수 외 2012; 성옥준 2013; 김가람, 이일용 2014).

본 연구에서는 위와 같은 다중흐름모형을 적용한 선행연구의 특징을 참고하여, 정치흐름이 정책 의제화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의제화 과정에서 정책선도자의 역할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특히, 정책선도자 분석에서는 특정한 개인을 정책선도자로 설정하여 정책선도자를 동기, 전략, 역량 등 다양한 측면에서 상세히 분석하고자 하였다.

### 3. 연구대상 개요

#### 3.1 국회도서관장 임명 관행

국회도서관장은 국회도서관법 제4조(관장)에 국회 의장이 국회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임명하는 정무직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위의 조항 외에 국회도서관장 임명에 대해 구체적인 방법이 제시되지 않아, 2014년 이전까지 국회도서관장 임명은 정치계의 관례에 따라 이루어졌다.

국회도서관장 임명 관행은 크게 두 시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1952년에서 1994년까지 이어진 청와대 및 여당 인사가 임명되던 시기이다. 이 시기에는 교수, 직업군인이 주로 임명되는 경향이 있었다. 이후 1994년부터는 정당의 추천에 의해 국회도서관장이 정해지는 관례가 굳어졌다. 국회의장 출신 당에서는 국회 사무총장을 추천하고, 그 외 당 중 가장 국회의원 수가 많은 당에서 국회도서관장을 추천하여 보

통 선거에서 떨어진 정치인이나 차기 선거에 대비하는 정치인이 국회도서관장을 역임해왔다(국회도서관 외 2012; 민주통합당 정치혁신실행위원회, 원혜영 2013).

#### 3.2 국회도서관장 전문가 임명 과정

2014년 말 국회도서관장 전문가 임명으로 이어지는 논의가 정치권에서 시작된 것은 2013년 2월이다. 2012년 말, 대통령 선거에서 새누리당의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된 후, 제1야당인 민주통합당은 대선 패배 이후 당의 정비를 위해 2013년 1월 정치혁신위원회를 설치하였다. 이어서 정치혁신위원회가 제안한 당 혁신 방안을 실행하기 위해 정치혁신실행위원회가 2013년 2월 설치되었다. 당시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문희상, 총괄본부장 설훈, 본부장 박기춘 의원, 위원 원혜영, 김영록, 변재일 의원 등으로, 당의 주요 간부들이 많이 투입된 모습이었다(민중의소리 2013.2.27).

민주통합당의 정치혁신실행위원회는 2013년 4월 30일에 '특권 Down 책임 Up: 정치혁신 실행 프로젝트'의 제5차 간담회를 개최하게 되는데, 이 때가 최초로 민주통합당 내의 공식 자료에서 국회도서관장 전문직 임명에 대한 논의가 등장하는 때이다. 원혜영 의원이 주축이 되어 진행된 이 간담회에는 교수인 문헌정보학회 부회장과 한국도서관협회 이사가 각각 발제자와 토론자로 참석했고, 그 외에 원혜영 의원, 신기남 의원, 문병호 의원이 참석하였다. 이 때 국회도서관장 전문직 임명을 위해 국회도서관법 개정을 통해 국회도서관장 자격을 전문가로 제한하고 그 임명 과정을 투명하게 처리해야 한다

는 의견이 제시되었다(민주통합당 정치혁신실행위원회, 원혜영 2013).

2013년 11월 26일에는 '야당 몫 국회 도서관장을 국민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라는 제목의 제안서가 민주통합당 내에서 전달 및 서명되기 시작했다(조선일보 2013.12.5). 당내 제안서는 신기남, 원혜영 의원이 공동으로 작성한 것으로, 학계, 전문가,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정하게 국회도서관장을 임명하자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였다.

2014년 5월 7일, 도서관문화발전 국회포럼 주관으로 성명서 '국회도서관장 직을 도서관계에 돌려줍시다'를 발표하였다(나눔일보 2014.5.7). 도서관문화발전 국회포럼은 2013년 9월 30일 신기남 민주통합당 의원과 이주영 새누리당 의원이 공동대표를 맡고 81인의 국회의원이 참여하여 설립된 국회의원 단체이다(뉴스와이어 2013.12.10). 이 성명서는 포럼 소속 의원 중 40인이 공동제안 하였으며, 앞서 민주통합당 내 국회도서관장 관련 제안을 했던 신기남, 원혜영 의원도 그 40인에 포함되었다.

한편, 2014년 3월 26일에 민주통합당, 민주당의 후신으로 창당된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정연)은 2014년 7월 30일 치러진 상반기 재보궐 선거에서 참패한 후 비상대책위원회 체제에 돌입했다. 박영선 비상대책위원장 체제가 새정연 내부 혼란을 수습하지 못한 채 끝나고 이어 문희상 의원이 2014년 9월 18일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임명된 후, 문희상 위원장은 2014년 9월 24일 정치혁신실천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장으로 원혜영 의원을 임명하였다(뉴스1 2014.9.24). 원혜영 위원장은 2014년 10월 6일 정치혁신실천위원회 1차 집중 토론회를 열고 국회도서관

장후보자추천위원회를 구성하기로 의결하였다(news300 2014.10.5).

의결 결과에 따라 2014년 11월 10일부터 2014년 12월 22일에 걸쳐 6인의 새정연 국회도서관장후보자추천위원회가 활동하였고, 그 구성원은 전원 외부 인사로 교수 5인(문헌정보학 교수 1인과 그 외 학과 교수 4인)과 출판계 인사 1인이었다(헤럴드경제 2014.12.23). 새정연 비상대책위원회는 2014년 12월 1일 30차 비상대책위원회 및 5차 당무위원회에서 당규 제6호(중앙조직규정) 제100조(국회도서관장추천특별위원회)를 신설하기로 의결하였는데(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2014.12.1), 추천위원회는 이미 11월 10일에 구성이 완료된 것을 볼 때 국회도서관장 전문직 임명 정책의 집행은 2014년 10월 6일에 실질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2014년 12월 22일에 이은철 성균관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가 추천위원회가 추천하는 후보로 만장일치 결정이 되었고, 이어 2014년 12월 26일에 국회 운영위원회가 추천인에 대한 국회도서관장 임명을 가결하여 최초의 문헌정보학 전공자 국회도서관장이 탄생하였다.

## 4. 연구대상 분석 결과

### 4.1 문제흐름

국회도서관을 포함하여, 우리나라의 국가도서관장의 문제를 드러내는 지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첫 번째는 역대 국가도서관장이 도서관계와 관련이 없는 인물이라는 점, 두 번째는 국가도서관장의 임기가 짧다는 것이다. 국회



도서관 60년사를 통해 확인한 결과, 국회도서관장의 평균 임기는 약 2.7년이며, 국회도서관장의 배경을 살펴보면 입법공무원, 정치인이 각 4명, 군인, 교수가 각 3명 등으로 도서관과 관계가 있는 것은 서지학자인 제3대 강주진 관장뿐이었다. 특히 정당 추천이 관례화된 1990년대 이후로는 관장 임기가 2년으로 고정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민주통합당 정치혁신실행위원회, 원혜영 2013). 주요 34개국의 국가도서관장은 국내와 달리, 2011년 기준 평균 재직기간이 7.5년으로 조사되었고 사서 경력이 있는 국가도서관장의 비율은 조사 대상의 50% 정도로 나타났다(윤희운 2011).

‘특권 Down 책임 Up: 정치혁신 실행 프로젝트’의 제5차 간담회 자료에서는 미국, 일본 사례와 우리나라 국회도서관장의 평균 임기 및 전문성을 비교하며 이러한 상황을 문제시하였다. 이는 Kingdon과 Thurber(2011)의 연구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상황을 문제로 인식시키기 위해 다른 나라의 경우와 비교하는 모습의 한 사례로 보인다.

#### 4.2 정치흐름

국회도서관장 전문가 임명의 주된 행위자와 정책선도자가 정치인이었던 만큼, 이 사례에서 정치흐름의 영향은 다른 흐름의 영향보다 컸음을 추측해볼 수 있다. 국회도서관장 전문직 임명 논의가 진행되던 2013년과 2014년, 특히 정책의 창이 열린 2014년 하반기의 국가적 분위기는 국회와 새정연에 대한 불만이 팽배했다. 2014년 8월 리얼미터 여론조사에 따르면, 시민단체, 정부, 언론, 국회, 법원 등 주요 8개 기관

중 가장 선호하는 집단으로 국회를 선택한 비율은 2.7%로, 8개 기관 중 7위를 차지했다(리얼미터 2014.8.29). 또한 2014년 7월부터 10월까지의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새정연에 대한 지지도는 당의 극심한 내홍과 함께 전반적인 하락세를 나타내다가 2014년 10월 첫 주에 이르러 문희상 비상대책위원회 출범과 함께 1.1%의 작은 지지도 상승을 나타내 19.1%의 낮은 지지도도를 보였다(리얼미터 2014.10.6).

국가적 분위기를 드러내는 또 다른 창구인 사설(지은정 2016)에서는 국회의원의 특권에 대한 비판이 2012년 이후 급격히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네이버 뉴스 검색을 통해 2011~2014년에 걸쳐 ‘국회의원 특권’을 다룬 사설을 검색해본 결과, 2011년에는 47건에 그친 국회의원 특권에 대한 사설이 2012년에는 256건, 2013년에는 228건, 2014년에는 262건으로 전반적으로 국회의원 특권에 대한 부정적인 국가적 분위기를 짐작하게 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2012년 이후 민주통합당과 새정연은 잇따른 선거 패배와 그를 뒤따르는 내분으로 혼란스러운 상태에 빠져있었다. 2012년 대선 이후 22일 간이나 뚜렷한 지도체제 없이 계파 갈등 양상을 보여주던 민주통합당은 2012년 1월 9일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을 추대하였고(연합뉴스 2013.1.9) 이어 당의 개혁을 위해 2013년 정치혁신위원회 및 대선평가위원회를 설치하는 노력을 기울였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2013년 상반기 재보궐선거에서 민주통합당 후보는 전부 낙선하였고, 이후 민주통합당의 기존 지도세력이 사퇴하고 소위 비노 세력이 지도부로 나서며 당명을 민주당으로 바꾸었다.

〈표 1〉 정치흐름과 국회도서관장 전문가 임명 과정 시점 간 비교

민주당계 당명 변화	정치흐름	시점	국회도서관장 전문가 임명 과정
민주통합당	제18대 대선(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 당선)	2012.12.19.	
	민주통합당 정치혁신위원회 설치	2013.01.18.	
	민주통합당 정치혁신실행위원회 설치	2013.02.27.	
	2013년 상반기 재보궐 선거(새누리당 2석, 무소속 1석 국회의원 당선)	2013.04.24.	
		2013.04.30.	‘특권 Down 책임 Up: 정치혁신 실행 프로젝트’의 제5차 간담회 개최
민주통합당 → 민주당 당명 변경		2013.05.04.	
민주당		2013.11.26.	민주통합당 내 ‘야당 몫 국회 도서관장을 국민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제안서 전달 및 서명
민주당 → 새정치민주연합 당명 변경		2014.03.26.	
새정치 민주연합		2014.05.07.	도서관문화발전 국회포럼 성명서 ‘국회도서관장직을 도서관계에 돌려줍시다’ 발표
	2014년 상반기 재보궐 선거(새누리당 11석, 새정연 4석 국회의원 당선)	2014.07.30.	
	새정연 박영선 비상대책위원장 임명	2014.08.04.	
	새정연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 임명	2014.09.18.	
	새정연 정치혁신실천위원회 설치	2014.09.24.	
	정치혁신실천위원회 1차 집중 토론	2014.10.06.	국회도서관장후보자추천위원회를 구성하기로 의결
		2014.11.10. ~ 2014.12.22.	새정연 국회도서관장후보자추천위원회 활동
	30차 비상대책위원회 및 5차 당무위원회	2014.12.01.	당규 제6호(중앙조직규정) 제100조(국회도서관장추천특별위원회) 신설
		2014.12.22.	이은철 성균관대 문헌정보학과 교수를 추천위원회 추천 후보로 결정
		2014.12.26.	국회 운영위원회가 국회도서관장 임명을 가결

2014년에 들어서면서 민주당은 안철수 의원의 새정치신당 세력과 합쳐지며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정연’)으로 재편성되었다. 창당 3개월 여 만에 치러진 2014년 7월 재보궐선거에서 새정연은 15석 중 4석을 얻는데 그쳐,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당대표인 김한길과 안철수 의원이 사퇴하고 2014년 8월 원내대표 박영선 의원의 비상대책위원회 체제가 들어섰다. 그러나 박영선 비상대책위원장은 표면적으로는 세월호 협상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라는 당내 여론

에 따라 2014년 9월 11일 사퇴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또 당내 계파 싸움이 영향을 주었다는 평가가 나왔다(한겨레 2014.10.2). 결국 2013년과 마찬가지로 계파색이 뚜렷하지 않은 중진인 문희상 의원이 다시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추대되었고, 문희상 위원장은 당 혁신과 계파 극복을 목표로 추대 일주일 만에 원혜영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정치혁신실천위원회를 설치하였다(경향신문 2014.9.19).

2013~2014년에 걸쳐 당내 갈등으로 여러 차

례의 지도부 변경과 여론 악화를 경험하는 과정에서 민주통합당 및 새정연은 여러 차례 혁신안을 제시하여 국면 전환을 하려고 시도했다. 2013년에는 2012년 대선 참패 후 정치혁신위원회·정치혁신실행위원회를 설치하고 성공회대 정해구 교수를 정치혁신위원장으로 임명하여 혁신안을 내놓았고, 2014년 2월에는 김한길 대표가 정치혁신 결의문을 제시했다. 그러나 혁신안을 만든 정해구 위원장이 “혁신안을 만들어놓으면 실행시킬 주체가 뭐냐. 혁신을 안으로부터 만들어가는 동력이 나올 줄 알았는데 50일 동안 동력이 안 나오더라”고 말한 바와 같이, 혁신안을 만드는 것과 별개로 실행할 주체가 없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비판 또한 등장했다(뉴시스 2013.3.13).

이와 같은 배경에서 2014년 9월 문화상 비상대책위원회 하에 설치된 정치혁신실천위원회는 계파색이 얽은 원혜영 의원을 위원장으로 삼아 그 이름부터 ‘실천’을 강조하는 모습을 보였고, 설치를 위한 당내 회의에서도 “실천 가능한 혁신 과제에 집중하자”는 의견이 모였다(연합뉴스 2014.9.24). 따라서 정치혁신실천위원회는 외부 인사를 영입해 획기적인 혁신안을 만드는 것보다, 만들어져 있는 혁신안을 바탕으로 당장 실천이 가능한 것부터 실행하는 것을 우선시하게 되었음을 추측해볼 수 있다. 원혜영 의원(서면면담, 2017.6.14) 역시 ““최고의 정치혁신은 실천이다”라는 기치를 내 걸고” 정치혁신실천위원회가 출범했다고 설명했다.

#### 4.3 정책흐름

Kingdon은 정책흐름을 아이디어들이 떠다니

는 수프 상태로 표현하며 흐름 안에 여러 대안이 존재하며 대안들끼리 뭉치고 흩어지며 진화한다고 설명한다. 이 사례에서 역시 정책 의제화가 되기 훨씬 이전부터 조금씩 다른 형태의 정책 아이디어가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2003년에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국회도서관지부에서 국회에 국회도서관장 자리 정당간 나눠먹기식 낙하산인사 중단 요구서를 제출하였다(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국회도서관지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국회사무처지부 2003.4.16). 이는 2003년 위법 정당활동으로 당시 관장이 7개월 만에 사임한 사건을 배경으로 한다. 이 요구서의 골자는 국회도서관장은 “전문성과 민주성을 갖춘 인사”로 공개추천 절차를 통해 공모해야 하며, 민간 전문가나 학계인사로 구성된 ‘국회도서관장후보추천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최종 추천되어야 하며, 국회공무원노조가 후보나 추천위원회 인사 추천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2004년에는 국회의원과 문헌정보학계가 각각 국회도서관장 임명에 대한 정책 아이디어를 제시하였다. 2004년 2월에는 한나라당 원희룡 의원 외 14인이 국회도서관법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는데(국회도서관법 개정법률안 2004), “국회도서관의 직무에 관하여 전문성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중립성을 유지”하는 자로 국회의원이나 국회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추천위원회를 거쳐 임명하는 것을 골자로 하였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 이 법률안에서 같이 제안된 것은 3급 이상의 국회도서관 소속 공무원 중 20퍼센트 이상을 계약직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민간인 전문가 채용 확대라는 배경에서 법안이 제출되었음을 추측해 볼 수 있었다.

2004년 6월에는 문헌정보학계의 8개 학회가 공동으로 국회의장 및 여야 대표에게 전문가 임명에 대한 청원서를 제출하고 성명서를 발표하였다(한겨레 2004.6.22). 이 성명에서는 문헌정보학 전문가가 임명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은 담겼으나, 구체적인 정책 대안은 제시되지 않았으며 그 당위성으로 2006년 세계 도서관 정보대회 개최를 앞두고 국가도서관장의 역할이 부각되었음을 들었다.

2005년에는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 외 9인이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05). 이 정책안의 특징은 국회도서관장 임명은 국회사무총장 및 국회예산정책처장 임명과 함께 묶였다는 점으로, 국회운영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해 이 세 직위는 후보자추천위원회의 추천과 국회운영위원회의 인사청문을 거친 인사가 임명되도록 한 것이 법률안의 핵심이었다. 이 법률안은 임기 종료로 폐기되었으나, 국회도서관장 임명 건과 달리 국회예산정책처장과 국회입법조사처장의 임명은 이후 2009년 국회예산정책처장추천위원회 및 국회입법조사처장추천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이 제정되어 추천위원회를 통해 이루어지게 되었다.

2013년 4월에는 민주통합당의 정치혁신실행위원회가 주최한 '특권 Down 책임 Up: 정치혁신 실행 프로젝트'의 제5차 간담회에 또 다른 국회도서관장 임명 정책 아이디어가 등장했다. 이 정책 아이디어에는 학계,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초빙위원회를 구성할 것과 관장의 임기는 최소 4년으로 보장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간담회의 토론 내용을 살펴보면, 도서관 전문지식을 가진 인물이 반드시 필요하지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니 추천위원회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장을 임명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전반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보인다(민주통합당 정치혁신실행위원회, 원혜영 2013).

2014년 5월에 원혜영, 신기남 의원 및 '도서관문화발전 국회포럼' 소속 의원 40인이 공동 제안한 '국회도서관장 직을 도서관계에 돌려주시다' 성명서에서는 "도서관계에서 정평이 난 신망 있는 사람으로 선임"할 것이 명시되었다. 또한 "합당한 인선을 하는 과정에서는 우리나라 도서관계의 대표기관인 한국도서관협회의 도움"을 받는 것으로 제안하여, 도서관계의 참여를 강조했다(나눔일보 2014.5.7). 도서관문화발전 국회포럼의 공동대표인 신기남 의원은 한국도서관협회장을 지냈으며, 국회의원 중에는 도서관 분야에 관심이 많은 인물로 알려져 있다. 신기남 의원은 위에서 다룬 정치혁신실행위원회의 '특권 Down 책임 Up: 정치혁신 실행 프로젝트'의 제5차 간담회에서도 정치인은 안 되고 전문성을 갖춘 인물을 관장으로 임명하기를 원하는 바가 있어, 도서관계의 이익을 지속적으로 대변하고자 함을 추측해볼 수 있다. 또한 도서관문화발전 국회포럼의 발족을 한국도서관협회가 지원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윤희운 2014.1.22), 다른 정책 아이디어보다 이 정책 아이디어에 도서관계의 영향력이 크게 작용했음을 짐작해볼 수 있다.

이상의 대표적인 정책 아이디어를 종합해 볼 때, 국회도서관장을 추천위원회를 통해 임명해야 한다는 것은 모든 정책 아이디어의 공통된 주장으로 넓은 공감대를 얻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 추천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정책 아이디어를 낸 주체마다 다른 의견을 나타

내는데, 각각의 특징을 살펴보자면 국회도서관 노조는 노조 참여를, 원혜영 의원 주도의 간담회에서는 시민사회와 학계의 참여를, 도서관문화발전 국회포럼에서는 한국도서관협회의 도움을 강조하였다. 이를 통해 정책선도자가 지속적으로 특정 정책 대안을 추진하더라도, 어떤 네트워크를 형성하느냐에 따라서 정책 대안은 변화한다는 사실과 정책 대안과 결합된 문제는 시기 및 대안의 옹호자에 따라 다름을 확인할 수 있었다

#### 4.4 정책의 창과 정책선도자

정책의 창은 긴급한 해결을 필요로 하는 문제로 인해 열리거나 정치흐름의 변화로 열리게 되어 정책 대안 지지자들이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데, 국회도서관장 임명의 경우에는 정책의 창이 정치흐름의 변화로 인해 열린 것으로 보인다. 2014년 9월, 새정연의 내용을 통합하기 위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가 출범한 후, 이전에 정치혁신실행위원회에 참여한 경험이 있고 계파색이 얽은 편인 원혜영 의원이 정치혁신실천위원장에 임명되면서 정책의 창이 열리게 되었다. 당시 새정연은 이미 혁신 과제에 대해 상당한 논의를 진행해둔 상태로, 정치혁신실천위원회는 새 혁신안 마련보다는 마련된 혁신안 중 실천 가능한 것을 실천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여 다른 정당과 차별화하고자 했다(아이뉴스24 2014.9.30). 따라서 정치혁신실천위원회가 신설됨으로써 기존에 제시된 혁신 과제들을 결정의제화할 수 있는 기회인 정책의 창이 열린 것으로 볼 수 있다.

정책의 창이 갑작스럽게 열리게 되면, 많은

정책 대안들이 더 높은 의제화 단계로 올라가기 위해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제를 적극적인 정책 결정 대상인 결정의제로 이끄는 것이 정책선도자의 역할이다. 이 사례에서 정책선도자는 2013년 초부터 국회의원의 특권 포기라는 관점에서 국회도서관장 전문직 임명이라는 정책 대안을 알리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온 유일한 인물인 원혜영 의원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 이러한 활동을 해온 원혜영 의원 자신이 정치혁신실천위원장에 임명된 것이 이 정책 대안을 추진하기에 적절한 기회였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원혜영 의원은 정책의 창이 열리자마자 정치혁신실천위원회 1차 집중토론에서 국회도서관장 후보자추천위원회를 구성하기로 의결하여 실질적인 정책 결정을 마쳤다.

정책선도자의 동기를 다룬 몇몇 연구를 참고했을 때, 정책선도자는 개인적 경험, 가족배경, 신념 및 핵심 가치, 영향력 확대, 각종 개인적 이익 등을 위해 특정 대안을 지지하고 정책선도자로서 활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Carter, Scott and Rowling 2004; Cohen 2012). 이 사례의 경우, 정책선도자의 주된 동기를 Kingdon이 정책 아이디어 생존을 결정 짓는 요소로 제시한 실행 가능성과 가치 정합성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우선, 국회도서관장 전문가 임명은 정책선도자가 가지고 있는 핵심 가치인 '시민 참여'에 잘 부합하는 정책 대안인 것으로 추정해볼 수 있다. 정책선도자는 1998년부터 2, 3대 부천시장을 역임하는 동안, 시민단체의 정책 참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였다. 당시 부천에는 1999년 발족한 '푸른부천21실천협의회'라는 시민 네트워

크가 형성되어 있었는데, 이 협의회는 1992년 브라질 리우회의에서 채택된 지방의제21에 바탕을 두고 있다. 지방의제21의 핵심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지방정부와 지역주민들이 긴밀한 협의를 거쳐 마련하게 되어 있는 구체적인 행동계획(문태훈 2006)”을 만드는 것으로, 시민의 참여를 강조하는 흐름이 원혜영 당시 부천시장을 포함한 부천 시민 사이에 존재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협의회가 지방정부의 협력 하에 활발하게 지방자치에 참여하여 부천시는 작은도서관 설립, 아동인권조례, 자전거 활성화, 분리수거 도입 등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낼 수 있었다(김현 2007.6.1). 당시 부천시장이었던 원혜영 의원 역시 시민이 참여하는 지방자치에 호의적이었던 것으로 보이며(브레이크뉴스 2014.2.17), 시민 참여, 나아가 국민 참여에 대한 관심은 이후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는 동안에도 이어진 것으로 추측된다. 대표적인 예로, 2009년 원혜영 의원은 생활정치연구소를 설립하는데, 이는 부천시장 시절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시민 참여와 시민 생활에 밀접한 정책을 다루겠다는 ‘생활정치’를 본격적으로 펼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원혜영 2009.11.17).

시민 참여를 강조하는 정책선도자의 핵심 가치에 비추어 보았을 때, 전국민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회도서관의 관장이 정당 내부의 논리에 의해 폐쇄적으로 임명되는 관행은 적절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원혜영 의원이 제시한 최초의 국회도서관장 전문가 임명 방안을 보면, 학계,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초빙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여기에서도 시민사회의 참여를 강조한 것은 원혜영 의원의 핵심 가치를

드러내는 사례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원혜영 의원(서면면담, 2017.6.14)은 국회도서관장 전문가 임명을 추진하게 된 이유로 “평소 소신대로 원내 제1,2 정당들이 국민의 동의 없이 갖고 있는 국회 소속 기관장 임명에 관한 기득권을 포기”하여 “정치인이 아닌 외부 전문가에게 개방하여 정상화”하고자 했다고 밝혔는데, 이 또한 정책선도자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핵심 가치가 국회도서관장 전문가 임명이라는 정책대안과 부합하는 모습을 드러낸다. 이러한 핵심 가치에 대한 믿음이 정책선도자 활동의 동기로 작용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한편, 국회도서관장 전문가 임명은 실현 가능성이 다른 대안들에 비해 매우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정치혁신실천위원회에서 추진한 혁신안을 크게 정당 혁신, 선거 혁신,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로 나눌 수 있다. 당내 계파청산을 큰 목표로 하는 정당 개혁은 상향식 비례대표 위원회 선출, 공천위원회 외부인사 영입, 당 윤리위원회 외부인사 영입, 국회의원 및 시도당위원장 등의 특정 후보 지지 금지 등의 안으로 추진되었고, 선거 개혁과 관련해 선거구 획정 독립기구 법안, 재보궐 공천금지 법안 등이 정치혁신실천위원회를 통해 발의되었다.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의 일환으로는 국회도서관장 추천권 포기,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남용 제한 법안 발의, ‘무노동 무임금’ 국회의원 세비 혁신안 법안 발의 등이 있었다. 이 중 선거 혁신이나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의 일환으로 추진된 혁신안들은 대부분 법률 개정이 필요로 하였기 때문에 여야 합의가 필수적이었으며, 실제로 법률 개정에 성공한 것은 선거구획정위원회 도입뿐이었다. 이와 대조적으로 정당 혁신

의 경우는 당내의 합의만 있으면 실행이 가능하여, 정치혁신실천위원회에서 제안한 혁신안을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의결하여 당헌 및 당규에 반영시킬 수 있었다(the300 2014.11.19). 정당 혁신 외의 혁신안 추진이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 국회도서관장 추천권 포기는 국회의원 특권 포기에 관한 정책 중 유일하게 당내 의결만으로 추진이 가능한 실현가능성이 높은 정책이었다.

또한,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측면에서 실질적으로 포기할 수 있는 새정연의 기득권이 많지 않았던 것도 정책선도자가 국회도서관장 추천권 포기를 실현가능성이 높은 대안으로 판단하고 추진한 이유로 볼 수 있다. 원혜영 의원(서면면담, 2017.6.14.)은 “우리당은 야당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크게 내놓을 것은 없는 상황”이었으며 “거의 유일하게 제1 야당의 기득권이라 할 만한 것이 국회도서관장 자리에 추천권을 갖는 것”이었기 때문에 정치혁신실천위원장 취임 후 가장 먼저 국회도서관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을 의결하였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근거들을 살펴볼 때, 당시의 화두인 혁신안의 실천을 위해 새정연 당내의 결심만으로 빠르게 실천할 수 있고, 마침 관례상의 2년 임기가 끝나는 국회도서관장의 추천권 포기를 정책선도자가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음을 추측해볼 수 있다. 또한 계파 갈등이 지속적으로 문제시 되는 상황에서 특정 정치인이나 그 측근을 국회도서관장으로 추천했을 때, 2010년 국회도서관장 임명을 두고 주류와 비주류 간 당내 갈등이 불거졌던 상황이 재발할 수 있음을 고려할

때(한국경제 2010.6.28; 민주신문 2010.7.13), 당 내에서의 추천권 포기에 대한 불만은 쉽게 표출될 수 없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밝히 핵심 가치를 추구한다는 측면에서의 동기도 있지만, 여러 측면에서 실현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 역시 정책선도자가 적극적으로 특정 정책 대안을 지지하게 하는 동기일 가능성을 제시한다.

이러한 동기를 바탕으로 정책선도자는 정책 대안의 정책 의제화를 위해 자신이 가용할 수 있는 자원과 전략을 활용하게 된다. 이 사례에서도 정책선도자는 <표 2><sup>2)</sup>와 같은 자원과 전략을 사용하여 성공적으로 정책을 의제화 하였다.

우선, 조직적 측면의 자원으로는 네트워크를 적절히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정책선도자는 당내에서 도서관과 관련이 깊은 신기남 의원과 함께 2013년 11월에 당내에 제안서를 전달하고 의원들의 서명을 독려하였으며, 이를 통해 당내의 의원들 사이에 정책 지지자 네트워크를 형성하고자 하였다. 또한 2014년 5월에는 도서관문화발전 포럼에 참여하는 의원들과 함께 성명서를 발표하는데, 이 때의 네트워크는 새정연 뿐 아니라 여당과 기타 정당의 의원들까지 참여하여 그 규모와 다양성이 확대 되게 되었다. 개인적 자원으로는 끈기와 명성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2013년부터 지속적으로 국회도서관장 임명권을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 정책 대안을 알리는 정책선도자 활동을 해온 결과, 초기에 부정적이었던 당내 여론에도 변화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데일리안 2014.12.27).

2) 표의 항목은 Mintrom과 Vergari(1996), Zahariadis(2007), Kingdon과 Thurber(2011)의 연구에서 제시한 정책선도자의 특성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이다.

〈표 2〉 정책선도자의 자원과 전략

성공요인	설명		정책선도자 분석
자원	조직적 자원	소속된 집단, 네트워크	- 네트워크: 도서관계와 관련이 있는 신기남 의원, 도서관문화발전 포럼과의 네트워크
	개인적 자원	협상기술, 전문성, 명성, 끈기 등	- 끈기: 2013년부터 지속적으로 혁신 필요성 주장 - 명성: 민주당계 4선 의원, 계파색이 열린 인물
전략	상징화, 정서 점화(affect priming), 프레임(framing), 살라미 전술(salami tactics) 등 <sup>3)</sup>		- 상징화: 국회도서관장에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최고의 지성”이라는 상징성을 부여함과 동시에, 국회도서관장 외부인사 영입을 당의 혁신 상징으로 이용하고자 함

또한 그가 민주당 계열의 4선 의원(2014년 기준)이며 계파색이 열어 정책 대안을 추진하더라도 특정 파벌의 심한 반대에 부딪히지 않을 것을 예상할 수 있다. 한편, 이 사례에서 정책선도자가 주로 사용한 전략은 상징을 적절히 사용하는 것이었다. 특정 정책안을 추구할 때 흔히 수사적으로 상징이 사용되는데, 적절한 사용된 상징적 표현은 설득 효과를 극대화한다고 알려져 있다(Birkland 2016). 정책선도자는 국회도서관장에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최고의 지성”이라는 상징성을 지속적으로 부여함과 동시에, 국회도서관장 외부인사 영입을 당의 혁신 상징으로 이용하고자 하였다(데일리안 2014.12.27).

이러한 동기와 특성들을 바탕으로 정책선도자는 국회도서관장 전문가 임명 정책 대안을 준비하며 기다리다가, 정책의 창이 열렸을 때 가지고 있던 정책 대안을 정치흐름에 연결시켜 빠른 시간 안에 정책 의제화하는데 성공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5. 논의

본 연구에서 국회도서관장 전문직 임명 정책을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을 통해 분석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분석 결과 나타난 가장 큰 특징은 문제흐름이 약하고 정치흐름이 매우 강한 경향을 보인다는 점이었다. 정치흐름의 영향이 큰 것은 Kingdon의 연구뿐 아니라 많은 국내의 선행연구에서 밝혀진 것과 동일한 결과로, 특히 이 사례에서는 전문가 집단이나 이익단체와 같은 비공식적 행위자의 개입이 상대적으로 적게 드러난 가운데 정당 내의 정치흐름 변화로 인한 정책선도자의 대응으로 정책 의제화 및 산출이 이루어졌다. 정치흐름 상 혁신에 대한 요구가 강해지던 2012년 이후 정책선도자는 혁신과 관련된 정책 대안들을 수집하거나 만들어 내고, 그 대안을 문제흐름과 연결 지어 대안을 알리는 활동을 하다가 정책의 창이 열리자 대안을 결의의제 단계로 이끌게 되었다.

3) 정서 점화는 최근 주어진 자극에 대한 평가가 이후 자극에 영향을 주고, 결과적으로 개인의 판단 과정을 왜곡시키는 효과이다(Klauer 1997). 프레임은 같은 대안이라도 그 대안을 긍정적 혹은 부정적으로 표현함에 따라 사람들의 선택이 달라지는 현상을 의미한다(Colman 2009, 295). 살라미 전술은 자신의 요구를 한 번에 관철하기 힘들 때, 요구를 단계적으로 나누어 상대방이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전술이다(Zahariadis 2007, 78).



〈표 3〉 다중흐름모형으로 분석한 국회도서관장 전문가 임명 정책 의제화 과정

요소	분석 결과
문제흐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표: 역대 국회도서관장의 임기가 평균 2.7년으로 짧고, 문헌정보학 전문성 결여</li> </ul>
정치흐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적 분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회와 새정연에 대한 국민의 불신</li> <li>- 국회의원 특권에 대한 비판</li> </ul> </li> <li>• 입법/행정부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2년 대선, 2014년 재보선에서 새정연 패배</li> <li>- 새정연 비대위 체제 유지</li> </ul> </li> <li>• 정당 기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새정연 정치혁신 관련 위원회 설치(정치혁신위원회, 정치혁신실천위원회 등)</li> <li>- 정치혁신 실천에 대한 필요성 대두</li> </ul> </li> </ul>
흐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3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국회도서관지부 요구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문성, 민주성 갖춘 후보를 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li> <li>- 국회공무원노조의 후보 및 추천위원회 인사 추천권 요구</li> </ul> </li> <li>• 2004년 원희룡 의원 외 14인 국회도서관법 개정법률안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문성, 정치중립성 갖춘 후보를 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li> <li>- 민간전문가 채용과 관련하여 법률 발의</li> </ul> </li> <li>• 2004년 문헌정보학계 8개 학회 성명서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헌정보학 전문가 추천을 요구했으나 구체적 방안은 제시되지 않음</li> </ul> </li> <li>• 2005년 심상정 의원 외 9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회 임명직 공무원의 추천위원회 구성과 함께 제안됨</li> </ul> </li> <li>• 2013년 특권 Down 책임 Up: 정치혁신 실행 프로젝트'의 제5차 간담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계, 시민사회가 참여하여 공정하게 관장 임명</li> </ul> </li> <li>• 2014년 도서관문화발전 국회포럼 소속 의원 40인 공동 제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서관계 인사가 한국도서관협회의 도움 하에 임명</li> </ul> </li> </ul>
정책의 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치흐름의 변화로 열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4년 새정연 비상대책위원회 하에 정치혁신실천위원회 설치</li> <li>- 기존에 제시된 혁신안을 실천할 기회</li> </ul> </li> </ul>
정책선도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새정연 원혜영 의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기: 정책선도자의 핵심가치(시민 참여)와 정책의 실행가능성(당 내 동의만으로 실천 가능)</li> <li>- 자원: 네트워크 형성(도서관 관련 의원, 도서관 문화발전 포럼), 명성(4선 의원), 끈기(2013년부터 꾸준히 정책 대안 지지)</li> <li>- 전략: 상징화(국회도서관장을 '최고의 지성'으로 상징화)</li> </ul> </li> </ul>

국회도서관장 혹은 국립중앙도서관장에 전문가가 임명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도서관계에 존재했으나, 2013년과 2014년에 걸쳐 정책이 의제화되는 과정에서 도서관계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문헌정보학계에서 국회도서관장 전문가 임명에 대한 성명이 2004년과 2005년에 있었고(“2005년 도서관계 10대 뉴스” 2006) 2011년 국가도서관장에 대

한 연구 논문(윤희운 2011)도 출판된 것을 보았을 때 도서관계에서 국회도서관장 전문직 임명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에 따른 노력도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서관계가 2014년 국회도서관장 전문가 임명 정책의 의제화 과정에서는 가시적인 역할을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다는 점은 몇 가지 시사점을 드러낸다.

첫째, 정책 의제화 과정에서 공식적 정책선도자의 중요성이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이 사례에서 정책 의제화는 공식적인 위치에 있는 정책선도자 개인에 의해 추진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적절한 자원과 동기를 가진 정책선도자가 있다면 정책 의제화가 가능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2013~2014년 이전에도 국회도서관장 추천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도서관계 혹은 국회의원들의 움직임이 존재했으나 의제화에 성공하지 못한 것은 지속성을 가지고 정책을 지지해온 행위자가 없었다는 이유도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또한, 정치흐름의 영향력이 큰 국내에서 정책선도자가 정치인일 경우 정책 의제화가 더욱 쉽게 이루어질 수 있음을 추측해볼 수 있는데, 이는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장관, 시장과 같은 정치인이 정책선도자였을 때 정책 의제화 및 산출에 성공한 사례들에 의해 뒷받침 된다(정우철, 우창빈 2015; 전영옥 2016; Cohen 2012).

둘째, 도서관 관련 정책 대안을 추진할 때 정치흐름과 문제흐름을 정책 대안에 적절히 연결할 수 있어야 함을 알 수 있다. 이 사례의 정책선도자의 경우, 당 내의 정치적인 흐름을 파악하여 혁신에 대한 요구가 커질 때 국회도서관장 전문직 임명 정책 대안을 혁신안의 일부로 제시하였고 대안의 의의를 강조하기 위해 역대 국회도서관장 임기와 배경을 문제로 지적하였다. 반면, 2004년 문헌정보학계의 성명에서는 정치흐름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해당 성명에서는 국내에서 개최되는 세계도서관 정보대회 전에 국가도서관의 위상을 높여야 함을 정책 대안 지지에 대한 유일한 근거로 들고 있다. 그러나 세계 도서관 정보대회 개

최는 정책 결정자인 국회의원들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어, 지지를 얻기 힘들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달리 국회의원들에 의해 발의된 2004년, 2005년의 국회법 및 국회도서관법 개정법률안을 살펴보면, 각각 민간경력자 채용과 국회 임명직 공무원 추천위원회 신설이라는 큰 틀 안에서 국회도서관장 전문직 임명을 정책 대안으로 제시하였는데, 이는 정치인들이 정치권의 관심사 안에서 국회도서관장 전문직 임명을 고려하였음을 보여준다.

결과적으로 2014년의 국회도서관장 전문직 임명 의제화가 가능했던 것은 공식적 권한을 가진 정책선도자가 정치흐름과 문제흐름을 자신이 가진 정책 대안에 적절히 연결했기 때문임을 추측해볼 수 있다.

정책 과정에서 도서관계는 비공식적 행위자인 전문가 집단으로서 국회의원과 같은 공식적 행위자와는 달리, 정치흐름 외부에서 특정 정책 대안을 만들어내고 의제화하려고 노력을 기울이는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이 지지 과정에서 도서관계에서만 공유되는 가치나 당위성만을 정책 대안 추진의 배경으로 제시하는데 그치지 말고, 정치흐름에서 중요시 되는 국가적 분위기나 선거 등으로 변화하는 정치인들의 관심사를 지속적으로 파악하여 이를 도서관계가 가지고 있는 정책 대안을 적절히 연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을 이 사례를 통해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경기도사이버도서관 설립 과정에 관한 추윤미와 김기영(2013)의 연구나 Craig et al.(2010)이 밝힌 아동비만 정책 과정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전문가 집단은 정책 대안과 문제흐름 및 정책흐름을 연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함을 보여준다.

나아가 정책 대안과 부합하는 핵심 가치를 가진 공식적 행위자와의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정책선도자로서의 역할을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의 한계로는 첫째, 수집한 자료의 유형이 공식적 자료 및 공개된 자료에 집중되어 있고 개인이나 단체가 내부적으로만 보유하고 있는 자료나 인터뷰와 같이 기존에 공개되지 않은 자료에 대한 분석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이 있다. 둘째, 연구의 범위가 정책 의제화이기 때문에, 의제화 이후 정책 집행 과정에서 정책 대안이 어떻게 결정되었는지, 또 정책 지지자 간의 갈등이 존재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분석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추후 다중흐름모형과 다른 정책 모형을 혼합한 분석틀을 사용한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중흐름모형은 각 흐름의 결합으로 정책 과정상의 변동을 설명하는 모형이기 때문에, 다양한 행위자에 대한 분석에 집중하지 않는다. 반면, 예를 들어 Sabatier(1999)의 옹호연합모형(Advocacy Coalition Framework)을 추가로 활용한다면, 본 연구에서 다룬 세 흐름 외에도 다양한 관련 변수에 대한 분석과 정책선도자 외의 행위자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Sabatier(1999)의 옹호연합모형은 안정적인 외적변수, 역동적인 외적변수의 영향 속에서 정책 하위체계의 옹호연합들의 신념, 전략, 상호작용 등을 주요 분석 항목으로 제시하는 모형이다. 이 모형을 이용한다면 본 연구에서 주목한 정치적 상황뿐 아니라, 한국도서관협회장 선출이나 세계도서관정보대회 개최와 같은 도서관계의 주요 사건이 국회도서관장

임명 정책 과정에 미친 영향을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관련된 옹호연합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인터뷰, 내부자료와 같은 비공식적 자료를 활용하여 더욱 포괄적으로 정책 의제화 및 결정을 분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옹호연합 간의 갈등이 두드러진 정책 과정이 발견된다면 해당 과정에 집중한 연구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6. 결론

본 연구는 다중흐름모형을 분석틀로 활용해 국회도서관장 전문가 임명의 정책 의제화 과정을 분석함으로써 이 사례를 둘러싼 문제흐름, 정치흐름, 정책흐름을 각각 살펴보고 정책의 창이 열렸을 때 의제화를 주도한 정책선도자의 동기와 특성, 전략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치흐름이 국회도서관장 전문가 임명의 정책 의제화에 가장 큰 영향을 주었다. 정책흐름과 문제흐름은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가운데, 새정연과 그 전신인 민주당, 민주통합당 내에서 지도부가 여러 차례 변화하는 등 내분이 계속되었고, 당을 재정비하려는 노력이 정치혁신 실천위원회 설치로 구체화 되어 정책의 창을 열게 되었다.

둘째, 정책흐름 내의 정책 대안은 핵심적인 부분을 제외하고는 관련자가 변함에 따라 그 내용이 변할 수 있다. 국회도서관장 임명에 있어서 추천위원회를 통한 임명은 핵심적인 부분으로 여러 행위자에게 동일하게 받아들여졌지만, 추천위원회의 구성은 정책 대안 제안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국회도서관노조, 시민사회, 학계, 도서관계 등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셋째, 정책의 창이 열렸을 때, 정책선도자의 지속적인 정책 대안 지지 활동을 바탕으로 빠르게 정책 의제화가 성공하였다. 특히, 이 사례에서는 정책선도자가 당내 정책결정자로 임명되면서 수월하게 정책 의제화가 가능했다. 그렇지만 정책선도자가 적절한 정책의 창이 열리는 순간을 기다리며 정책 대안을 준비해오지 않았다면 해당 정책 의제화가 성공할 수 없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넷째, 정책선도자가 특정 정책 대안을 지지하는 동기로는 핵심 가치에 대한 정합성과 실현 가능성에 대한 고려가 모두 작용할 수 있다. 이 사례에서 정책선도자는 시민 참여라는 본인의 핵심 가치에 적합한 정책 대안인 국회도서관장 임명권 포기를 지지했으나, 이 핵심 가치만으로는 여러 대안들 중 이 대안을 선택해 가장 먼저 추진한 것을 쉽게 설명할 수 없다. 이에 실현 가능성을 함께 고려하였는데, 다른 대안들 보다 이 대안이 큰 반발을 얻지 않고 쉽고 빠르게 실천할 수 있기 때문에 국회도서관장 전문직 임명을 적극적으로 지지한 것으로 추측해볼 수 있다.

이러한 분석 결과로 볼 때, 전문가 집단을 형성하는 도서관계는 국회의원과 같은 공식적 행위자 중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 대안에 부합하는 핵심 가치를 가진 행위자에게 적극적으로 정책 대안에 대한 지지를 호소해 함께 공식적 행위자와 함께 정책선도자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나아가 정책 대안을 당시의 정치흐름 및 문제흐름과 연관 지어

도서관계뿐 아니라 더 넓은 범위의 행위자들 및 대중으로부터의 지지를 이끌어내는 것이 정책 의제화에 적합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기존에 많이 연구되지 않았던 정책선도자의 동기를 핵심 가치와 실행 가능성 측면에서 분석하고자 하였는데, 추후 이 정책선도자의 핵심 가치를 Sabatier(1999)의 신념체계(belief system)를 바탕으로 분석하고 시간 흐름에 따라 신념 체계의 변화와 정책 대안 내용 혹은 전략 상 변화가 나타나는지 살펴보면 정책선도자에 대해 더욱 풍부한 분석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도서관과 큰 관련이 없는 정치인인 정책선도자의 적극적 활동에 기반을 두어 이 사례의 정책 의제화가 이루어진 것을 볼 때, 국회의원과 같이 정치흐름에서 상대적으로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개인에게 정책선도자로서의 동기를 부여할 수 있다면 그 개인이 도서관 관련 정책 의제화 과정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추후 정책선도자의 동기 및 신념 체계에 대해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본 연구에서 정책 집행 과정이나 정책 평가 측면의 분석은 연구 범위 밖임을 밝혀둔다. 본 연구는 다중흐름모형을 바탕으로 정책 의제화 및 산출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정책 집행 과정이나 정책 평가와 이에 대한 각 흐름 및 정책선도자의 영향은 파악할 수 없었다. 따라서 국회도서관장 전문가 임명 정책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이 정책이 국회도서관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또 그 영향이 국회도서관의 경영에 있어 효과적이었는지는 추후 별도의 연구를 통해 분석되어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1] 2005년 도서관계 10대 뉴스, 2006. 『도서관계』, 139: 38. [online] [cited 2017. 6. 20.]  
 <[http://www.nl.go.kr/upload/research\\_data/text/newsletter/200601/060102sosig\\_focus01.htm](http://www.nl.go.kr/upload/research_data/text/newsletter/200601/060102sosig_focus01.htm)>
- [2] 경기도지사 출마후보자에게 듣는다① 민주당 원혜영 의원, 2014. 『브레이크뉴스』, 2월 17일. [online]  
 [cited 2017. 6. 21.] <[http://www.breaknews.com/sub\\_read.html?uid=305280&section=sc1](http://www.breaknews.com/sub_read.html?uid=305280&section=sc1)>
- [3] 국회도서관 외, 2012. 『국회도서관 60년사』, 서울: 국회도서관.
- [4] 국회도서관장, 전공인사로 바뀌라!. 2004. 『한겨레』, 6월 22일. [online] [cited 2017. 7. 10.]  
 <<http://legacy.www.hani.co.kr/section-009000000/2004/06/009000000200406222035306.html>>
- [5] “국회도서관장직 국민에게 돌려주자” 서명운동 나선 원혜영·신기남 의원, 2013. 『조선일보』, 12월 5일. [online] [cited 2017. 6. 19.]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3/12/05/2013120500082.html](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3/12/05/2013120500082.html)>
- [6] 국회도서관장 후보에 이은철 교수, 2014. 『헤럴드경제』, 12월 23일. [online] [cited 2017. 6. 21.]  
 <<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141223000580>>
- [7] 권석천, 장현주, 2015.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을 통해서 본 검찰개혁과정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 과정을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24(2): 335-362.
- [8] 김가람, 이일용, 2014. 다중흐름모형을 적용한 반값등록금 정책 변동과정 분석. 『교육정치학연구』, 21(1): 27-49.
- [9] 김기식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정치혁신실천위원회 1차 집중 토론 결정 보고’, 2014. 『news 300』, 10월 5일. [online] [cited 2017. 6. 20.]  
 <[http://www.news300.kr/sub\\_read.html?uid=2931&section=sc2&section2=](http://www.news300.kr/sub_read.html?uid=2931&section=sc2&section2=)>
- [10] 김명환, 2010. 지방정부의 정책변동 분석.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2(3): 155-173.
- [11] 김지수 외, 2012.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제도의 형성과정 분석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multiple streams model)을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21(1): 251-283.
- [12] 김현, 2007. 『“민(民)과 관(官)이 만났을 때” - 푸른부천21실천협의회 -를 찾아』. [online] [cited 2017. 6. 24.]  
 <[http://grasslog.net/index.php?mid=case&page=3&document\\_srl=7276](http://grasslog.net/index.php?mid=case&page=3&document_srl=7276)>
- [13] 도서관문화발전 국회포럼, ‘야당몫 국회도서관장직 도서관계에 돌려줘야’ 2014. 『나눔일보』, 5월 7일. [online] [cited 2017. 6. 24.]  
 <[http://www.nanumilbo.com/sub\\_read.html?uid=7125&section=sc1](http://www.nanumilbo.com/sub_read.html?uid=7125&section=sc1)>
- [14] ‘도서관문화발전 국회포럼’ 제2차 정책포럼 개최, 2013. 『뉴스와이어』, 12월 10일. [online] [cited 2017. 8. 11.]

- <<http://www.newswire.co.kr/newsRead.php?no=727461>>
- [15] 문태훈. 2006. 『온라인행정학전자사전』, s.v. “지방의제21” [online] [cited 2017. 6. 24.]  
<[http://www.kapa21.or.kr/epadic/epadic\\_view.php?num=170&page=1&term\\_cate=&term\\_word=%C1%F6%B9%E6%C0%C7%C1%A621&term\\_key=&term\\_auth=](http://www.kapa21.or.kr/epadic/epadic_view.php?num=170&page=1&term_cate=&term_word=%C1%F6%B9%E6%C0%C7%C1%A621&term_key=&term_auth=)>
- [16] 문헌정보학용어사전 편찬위원회. 2010. 『문헌정보학용어사전』, s.v. “국가도서관” [online] [cited 2017. 6. 18.]  
<[http://www.kla.kr/jsp/fileboard/termdic.do?procType=view&f\\_termdic\\_seq=507](http://www.kla.kr/jsp/fileboard/termdic.do?procType=view&f_termdic_seq=507)>
- [17] 문희상 “혁신위, 한 가지라도 분명히 실천해야.” 2014. 『아이뉴스24』. 9월 30일. [online] [cited 2017. 6. 21.]  
<[http://news.inews24.com/php/news\\_view.php?g\\_serial=852450&g\\_menu=050220&rnf=nv](http://news.inews24.com/php/news_view.php?g_serial=852450&g_menu=050220&rnf=nv)>
- [18] 민주 비대위원장에 문희상 합의추대(종합). 2013. 『연합뉴스』. 1월 9일. [online] [cited 2017. 6. 19.]  
<<http://www.yonhapnews.co.kr/politics/2013/01/09/0502000000AKR20130109090851001.HTML>>
- [19] 민주 “야당 뭉 국회 도서관장 누구지?” 2010. 『한국경제』. 6월 28일. [online] [cited 2017. 6. 21.]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0062714191>>
- [20] 민주, ‘정치혁신 실행’ 위원회 설치키로. 2013. 『민중의 소리』. 2월 27일. [online] [cited 2017. 6. 24.] <<http://www.vop.co.kr/A00000603831.html>>
- [21] 민주, 정치혁신위 혁신안 놓고 ‘난상토론.’ 2013. 『뉴시스』. 3월 13일. [online] [cited 2017. 6. 23.] <[http://www.news1.com/view/?id=NISX20130313\\_0011916196](http://www.news1.com/view/?id=NISX20130313_0011916196)>
- [22] 민주통합당 정치혁신실행위원회, 원혜영. 2013. 『특권 Down 책임 Up: 정치혁신 실행 프로젝트 종합 자료집』. 서울: 대한민국 국회.
- [23] 새정치 계파다툼 어땠기에... 박영선 ‘가시돋친 퇴장’ 2014. 『한겨레』. 10월 2일. [online] [cited 2017. 6. 24.]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658090.html>>
- [24] 새정치련 국회도서관장 외부인사 추천, 그 과정을 보니... 2014. 『데일리안』. 12월 27일. [online] [cited 2017. 6. 24.] <<http://www.dailian.co.kr/news/view/478162/?sc=naver>>
- [25] 새정치련, 당 정치혁신실천위원장에 4선의 원혜영 선임(상보). 2014. 『뉴스1』. 9월 24일. [online] [cited 2017. 6. 22.] <<http://news1.kr/articles/?1872985>>
- [26]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2014. 『유기홍 수석대변인, 오전현안브리핑』. 12월 1일. [online] [cited 2017. 6. 24.] <[http://theminjoo.kr/President/briefingDetail.do?bd\\_seq=23771](http://theminjoo.kr/President/briefingDetail.do?bd_seq=23771)>
- [27] 새정치연합 정치혁신실천위원장에 원혜영. 2014. 『연합뉴스』. 9월 24일. [online] [cited 2017. 6. 24.]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

- d=0007140078>
- [28] 새정치연합 하락세 마감, 소폭 반등. 2014. 『리얼미터』. 10월 6일. [online] [cited 2017. 6. 25.]  
 <<http://www.realmeter.net/2014/10/새정치연합-하락세-마감-소폭-반등>>
- [29] 성욱준. 2013. 개인정보보호법 입법 과정에 관한 연구 - 정책흐름모형을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22(2): 151-179.
- [30] 심상정 외. 200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173308
- [31] 야(野), 전당대회서 특정후보 공개 지지 금지 등 혁신안 11건 의결. 2014. 『the300』. 11월 19일.  
 [online] [cited 2017. 6. 24.]  
 <<http://the300.mt.co.kr/newsView.html?no=2014111915597669458&ref=https%3A%2F%2Fsearch.naver.com>>
- [32] 오지은, 정동열. 2016. 공공도서관장의 리더십 역량수준 측정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0(4): 253-281.
- [33] 원혜영. 2009. 『[한국과 일본] 이제는 생활정치다!』. [online] [cited 2017. 6. 25.]  
 <<http://whywon.net/482>>
- [34] 원혜영. 2017. 『2017년 6월 14일 국회도서관장 관련 서면인터뷰 답변』.
- [35] 원희룡 외. 2004. 『국회도서관법중개정법률안』. 의안번호 163141
- [36] 위기의 새정치 '6개월 구원투수'된 문화상 비대위원장 “쓰레받기라도 들고 서있겠다... 배 가라앉는 것부터 막고 봐야” 2014. 『경향신문』. 9월 19일. [online] [cited 2017. 6. 24.]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9190600055&code=910402](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9190600055&code=910402)>
- [37] 유재일 국회도서관장 임명 논란. 2010. 『민주신문』. 7월 13일. [online] [cited 2017. 6. 24.]  
 <<http://www.iminju.net/news/articleView.html?idxno=2681>>
- [38] 윤희윤. 2011. 국가도서관장의 전문성 확보방안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5(3): 87-106.
- [39] 윤희윤. 2014. 『한국도서관협회장 2014년 신년사』. [online] [cited 2017. 8. 11.]  
 <[http://www.kla.kr/jsp/info/office\\_daliyLog.do?procType=view&f\\_board\\_nm=S09&f\\_board\\_seq=43273](http://www.kla.kr/jsp/info/office_daliyLog.do?procType=view&f_board_nm=S09&f_board_seq=43273)>
- [40] 이지호. 2012. 기초노령연금정책의 의제설정과 정책결정에 관한 인지지도분석. 『한국정책과학학회보』, 16(1): 49-72.
- [41] 장덕현, 이연옥, 윤진. 2003. 공공도서관장의 역할과 일상적 직무에 대한 질적 분석.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4(4): 253-270.
- [42]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국회도서관지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국회사무처지부. 2003. 『국회도서관장 자리에 정당 간 나눠먹기식 낙하산인사를 중단하고, 공개적이고 합리적인 검증절차를 거쳐 임명할 것을 요구한다』. [online] [cited 2017. 7. 9.]

<[http://seodaemungu.keu.org/board/view.asp?number=2530&npart=A&ntext=&category\\_no=&club\\_no=&menu\\_no=&page=546&bID=GUD\\_201&norderby=bFref%20DESC,%20bFstep%20ASC](http://seodaemungu.keu.org/board/view.asp?number=2530&npart=A&ntext=&category_no=&club_no=&menu_no=&page=546&bID=GUD_201&norderby=bFref%20DESC,%20bFstep%20ASC)>

- [43] 전성욱. 2014. 기초연금법 입법과정 분석. 『정책분석평가학회보』, 24(4): 119-151.
- [44] 전영욱. 2016. 다중흐름모형(MSF)을 적용한 지방자치단체 학생인권정책의 형성과정 분석. 『한국자치행정학보』, 30(2): 181-203.
- [45] 정우철, 우창빈. 2015. 다중흐름모형의 수정모형을 활용한 정책과정 분석 - 치매특별등급제도의 정책변동 과정에 대한 분석. 『한국정책학회보』, 24(3): 437-469.
- [46] 정현태. 2004. 공공도서관 관장의 사서직과 비사서직간 직무성과 비교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5(1): 119-133.
- [47] 주요기관 신뢰도, 검찰 또다시 최하위. 2014. 『리얼미터』. 8월 29일. [online] [cited 2017. 6. 24.] <<http://www.realmeter.net/2014/08/주요기관-신뢰도-검찰-또다시-최하위>>
- [48] 지은정. 2016. 다중흐름모형의 관점에서 본 노인일자리사업의 정책변동. 『행정논총』, 54(3): 225-268.
- [49] 최성락, 박민정. 2012. Kingdon 정책흐름모형 적용의 적실성에 대한 연구. 『한국정책연구』, 12(1): 119-137.
- [50] 추윤미, 김기영. 2013. 경기도사이버도서관 설립의 정책형성과정 분석: 킹던의 정책흐름모형을 중심으로. 『정보관리학회지』, 30(3): 71-87.
- [51] Birkland, T. A. 2016. *An Introduction to the Policy Process*. New York: Routledge.
- [52] Carter, R. G. and Scott, J. M. 2004. "Taking the Lead: Congressional Foreign Policy Entrepreneurs in U.S. Foreign Policy." *Politics and Policy*, 32(1): 34-70.
- [53] Carter, R. G., Scott, J. M., and Rowling, C. M. 2004. "Setting a Course: Congressional Foreign Policy Entrepreneurs In Post-World War II U.S. Foreign Policy." *International Studies Perspectives*, 5(3): 278-299.
- [54] Cohen, N. 2012. "Policy Entrepreneurs and the Design of Public Policy: The Case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Law in Israel." *Journal of Social Research and Policy*, 3(1): 5-26.
- [55] Colman, A. M. 2009. *A Dictionary of Psychology*. 3th e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s.v. "Framing Effect".
- [56] Craig, R. L. et al. 2010. "Public Health Professionals as Policy Entrepreneurs: Arkansas's Childhood Obesity Policy Experience."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100(11): 2047-2052.
- [57] Harris-Keith, C. S. 2016. "What Academic Library Leadership Lacks: Leadership Skills Directors Are Least Likely to Develop, and Which Positions Offer Development Opportunity." *The Journal of Academic Librarianship*, 42(4): 313-318.



- [58] Haycock, K. 2011. "Exemplary Public Library Branch Managers: Their Characteristics and Effectiveness." *Library Management*, 32(4/5): 266-278.
- [59] Hernon, P., Powell, R. R. and Young, A. P. 2003. *The Next Library Leadership*. Westport: Libraries Unlimited.
- [60] Kingdon, J. W. and Thurber, J. A. 2011. *Agendas, Alternatives, and Public Policies*. New York: Longman.
- [61] Klauer, K. C. 1997. "Affective Priming." *European Review of Social Psychology*, 8(1): 67-103.
- [62] Minjie, Y., Youneng, P. and Nan, D. 2016. "Analysis of the Knowledge Backgrounds of Library Directors from Top Universities in Mainland China, Hong Kong, and Taiwan." *Journal of Librarianship and Information Science*, 48(4): 373-381.
- [63] Mintrom, M. and Norman, P. 2009. "Policy Entrepreneurship and Policy Change." *Policy Studies Journal*, 37(4): 649-667.
- [64] Mintrom, M. and Vergari, S. 1996. "Advocacy Coalitions, Policy Entrepreneurs, and Policy Change." *Policy Studies Journal*, 24(3): 420-434.
- [65] Sabatier, P. A. 1999. *Theories of the Policy Process*. Boulder: Westview Press.
- [66] Zahariadis, N. 2007. "Chapter 3: The Multiple Streams Framework: Structure, Limitations, Prospects." In Sabatier, P. A. ed. *Theories of the policy process*. Boulder: Westview Press.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1] "2005nyeon Doseogwangye 10dae News." 2006. *Newsletter of Libraries*, 139: 38. [online] [cited 2017. 6. 20.]  
 <[http://www.nl.go.kr/upload/research\\_data/text/newsletter/200601/060102sosig\\_focus01.htm](http://www.nl.go.kr/upload/research_data/text/newsletter/200601/060102sosig_focus01.htm)>
- [2] "Gyeonggi-dojsa Chulmahubojaege Deunneunda① Minjudang Won Hyeyoung Uiwon." 2014. *BreakNews*. February 17. [online] [cited 2017. 6. 21.]  
 <[http://www.breaknews.com/sub\\_read.html?uid=305280&section=sc1](http://www.breaknews.com/sub_read.html?uid=305280&section=sc1)>
- [3] National assembly library et al. 2012. *National Assembly Library 60 Years*. Seoul: National Assembly Library.
- [4] "Gukoedoseogwanjang, Jeongonginsaro Bakkwora!." 2004. *the Hankyoreh*. June 22. [online] [cited 2017. 7. 10.]  
 <<http://legacy.www.hani.co.kr/section-009000000/2004/06/009000000200406222035306.html>>

- [5] “Gukoedoseogwanjangjik Gungminege Dollyeojuja” Seomyeongundong Naseon Won Hyeyoung · Shin Kinam Uiwon.” 2013. *The Chosun Ilbo*. December 5. [online] [cited 2017. 6. 19.]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3/12/05/2013120500082.html](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3/12/05/2013120500082.html)>
- [6] “Gukoedoseogwanjang Huboe Lee Eun-Chul Gyosu.” 2014. *The Herald Business*. December 23. [online] [cited 2017. 6. 21.] <<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141223000580>>
- [7] Kwon, Seokcheon and Jang, Hyeonju. 2015. “A Study on a Prosecution Reform Process through Kingdon’s Multiple Streams Framework: Focused on an Abolition of the Central Investigation Department of the Supreme Prosecutors’ Office.” *The Korea Association for Policy Studies*, 24(2): 335-362.
- [8] Kim, Ga-Ram and Lee, Il-Yong. 2014. “A Study on the Half Tuition Policy Change Process - Based on Multiple Streams Framework.” *The Journal of Politics of Education*, 21(1): 27-49.
- [9] “Kim Gisik Uiwon ‘Saejeongchiminjuyeonhap Jeongchihyeoksinsilcheonwiwonhoe Icha Jipjung Toron Gyeoljeong Bogo.’” 2014. *news 300*. October 5. [online] [cited 2017. 6. 20.] <[http://www.news300.kr/sub\\_read.html?uid=2931&section=sc2&section2=](http://www.news300.kr/sub_read.html?uid=2931&section=sc2&section2=)>
- [10] Kim, Myounghwan. 2010. “Analysis of Policy Change in Local Government.” *Journal of Local Government Studies*, 22(3): 155-173.
- [11] Kim, Jisu et al. 2012. “The Analysis of the Policy Formation Process of the Electronic Device Attachment System to Sexual Offenders against Children by Multiple Streams Model.” *The Korea Association for Policy Studies*, 21(1): 251-283.
- [12] Kim, Hyeon. 2007. “When Citizen met Government” - Visiting Blue Bucheon21 Practice Conference. [online] [cited 2017. 6. 24.] <[http://grasslog.net/index.php?mid=case&page=3&document\\_srl=7276](http://grasslog.net/index.php?mid=case&page=3&document_srl=7276)>
- [13] “Doseogwanmunhwabaljeon Gukoe Forum, ‘Yadangmok Gukoedoseogwanjangjik Doseogwangye Dollyeojwoya.’” 2014. *Nanum Ilbo*. May 7. [online] [cited 2017. 6. 24.] <[http://www.nanumilbo.com/sub\\_read.html?uid=7125&section=sc1](http://www.nanumilbo.com/sub_read.html?uid=7125&section=sc1)>
- [14] “Doseogwanmunhwabaljeon Gukoe Forum’ Je2cha Jeongchaek Forum Gaechoe.” 2013. *Newswire*. December 10. [online] [cited 2017. 8. 11.] <<http://www.newswire.co.kr/newsRead.php?no=727461>>
- [15] Moon, Tae Hoon. 2006. *Online Public Administration Electronic Dictionary*, s.v. “Local Agenda 21” [online] [cited 2017. 6. 24.] <[http://www.kapa21.or.kr/epadic/epadic\\_view.php?num=170&page=1&term\\_cate=&term\\_word=%C1%F6%B9%E6%C0%C7%C1%A621&term\\_key=&term\\_auth=](http://www.kapa21.or.kr/epadic/epadic_view.php?num=170&page=1&term_cate=&term_word=%C1%F6%B9%E6%C0%C7%C1%A621&term_key=&term_auth=)>
- [16] Korea Library Association Library Science Glossary Editorial Committee. 2010. *The Glossary*

-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2010., s.v. "National Library" [online] [cited 2017. 6. 18.] <[http://www.kla.kr/jsp/fileboard/termdic.do?procType=view&f\\_termdic\\_seq=507](http://www.kla.kr/jsp/fileboard/termdic.do?procType=view&f_termdic_seq=507)>
- [17] "Moon Huisang "Hyeoksinwi, Han Gajirado Bunmyeonghi Silcheonhaeya."" 2014. *inews24*. September 30. [online] [cited 2017. 6. 21.] <[http://news.inews24.com/php/news\\_view.php?g\\_serial=852450&g\\_menu=050220&rnf=nv](http://news.inews24.com/php/news_view.php?g_serial=852450&g_menu=050220&rnf=nv)>
- [18] "Minju Bidaewiwonjange Moon Huisang Habuichudae (Jonghap)." 2013. *Yonhap News*. January 9. [online] [cited 2017. 6. 19.] <<http://www.yonhapnews.co.kr/politics/2013/01/09/0502000000AKR20130109090851001.HTML>>
- [19] "Minju "Yadang Mok Gukoedoseogwanjang Nuguji?." 2010. *The Korea Economic Daily*. June 28. [online] [cited 2017. 6. 21.]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0062714191>>
- [20] "Minju, Jeongchihyeoksin Silhaengwiwonhoe Seolchikiro." 2013. *Voice of the People*. February 27. [online] [cited 2017. 6. 24.] <<http://www.vop.co.kr/A00000603831.html>>
- [21] "Minju, Jeongchihyeoksinwi Hyeoksinan Noko 'Nansangtoron'." 2013. *Newsis*. March 13. [online] [cited 2017. 6. 23.]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30313\\_0011916196](http://www.newsis.com/view/?id=NISX20130313_0011916196)>
- [22] Democratic Party of Korea Political Innovation Action Committee and Won, Hyeyoung. 2013. *Privilege Down Obligation Up: Political Renovation Movement Project Comprehensive Source Book*. Seoul: The National Assembly.
- [23] "Saejeongchi Gyepadatum Eottaetgie...Park Yeongseon 'Gasidotchin Toejang'." 2014. *The Hankyoreh*. October 2. [online] [cited 2017. 6. 24.]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658090.html>>
- [24] "Saejeongchiryeon Gukoedoseogwanjang Oebuinsa Chucheon, Geu Gwajeongeul Boni...." 2014. *Dailian*. December 27. [online] [cited 2017. 6. 24.] <<http://www.dailian.co.kr/news/view/478162/?sc=naver>>
- [25] "Saejeongchiryun, Dang Jeongchihyeoksinsilcheonwiwonjange Aseonui Won Hyeyoung Seonim (Sangbo)." 2014. *New1*. September 24. [online] [cited 2017. 6. 22.] <<http://news1.kr/articles/?1872985>>
- [26] Democratic Party of Korea Press Release Team. 2014. *Yoo Gihong Chief Spokesperson, Morning Issue Briefing*. December 1. [online] [cited 2017. 6. 24.] <[http://theminjoo.kr/President/briefingDetail.do?bd\\_seq=23771](http://theminjoo.kr/President/briefingDetail.do?bd_seq=23771)>
- [27] "Saejeongchiyeonhap Jeongchihyeoksinsilcheonwiwonjange Won Hyeyoung." 2014. *Yonhap News*. September 24. [online] [cited 2017. 6. 24.]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7140078>〉
- [28] “Saejeongchiyeonhap Harakse Magam, Sopok Bandeung.” 2014. *Realmeter*. October 6. [online] [cited 2017. 6. 25.]  
〈<http://www.realmeter.net/2014/10/새정치연합-하락세-마감-소폭-반등>〉
- [29] Seong, Ukjun. 2013. “A Study on Lawmaking Process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Focusing on Policy Streams Model.” *The Korea Association for Policy Studies*, 22(2): 151-179.
- [30] Sim, Sangjeong et al. 2005. *Amendments of National Assembly Act*. Bill Number 173308.
- [31] “Ya, Jeondangdaehoeseo Teukjeonghubo Gonggae Jiji Geumji Deung Hyeoksinan 11geon Uigyeol.” 2014. *the300*. November 19. [online] [cited 2017. 6. 24.]  
〈<http://the300.mt.co.kr/newsView.html?no=2014111915597669458&ref=https%3A%2F%2Fsearch.naver.com>〉
- [32] Oh, Ji Eun and Jeong, Dong Youl. 2016. “A Study on Measuring the Levels of Competency Components of Public Library Directors.” *Journal of the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50(4): 253-281.
- [33] Won, Hyeyoung. 2009. *[Korea and Japan] This is the Moment for Life Politics!*. [online] [cited 2017. 6. 25.] 〈<http://whywon.net/482>〉
- [34] Won, Hyeyoung. 2017. “Interview about the Director of National Assembly Library by Letter, June 14.”
- [35] Won, Huiryong et al. 2004. *Amendments of National Assembly Library Act*. Bill Number 163141.
- [36] “Wigiui Saejeongchi ‘6gaewol Guwontusu’doen Moon Huisang Bidaewiwonjang “Sseurebatgirado Deulgo Seo Itgetda... Bae Garaanneun Geotbuteo Makgobwaya”” 2014. *The Kyunghyang Shinmun*. September 19. [online] [cited 2017. 6. 24.]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9190600055&code=910402](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9190600055&code=910402)〉
- [37] “Yoo Jaeil Gukoedoseogwanjang Immyeong Nollan.” 2010. *Minjusinmoon*. July 13. [online] [cited 2017. 6. 24.] 〈<http://www.iminju.net/news/articleView.html?idxno=2681>〉
- [38] Yoon, Hee-Yoon. 2011. “A Study on Ensuring the Professionalism of the National Library Director.” *Journal of the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5(3): 87-106.
- [39] Yoon, Hee-Yoon. 2014. *Korean library Association 2014 New Year Address*. [online] [cited 2017. 8. 11.]

- <[http://www.kla.kr/jsp/info/office\\_daliyLog.do?procType=view&f\\_board\\_nm=S09&f\\_board\\_seq=43273](http://www.kla.kr/jsp/info/office_daliyLog.do?procType=view&f_board_nm=S09&f_board_seq=43273)>
- [40] Lee, Jiho. 2012. "Policy Agenda Setting Process and Cognitive Map Analysis: a Case of the Basic Old-Age Pension Scheme."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for Policy Science*, 16(1): 49-72.
- [41] Chang, Duk-Hyun, Lee, Yeon-Ok and Yoon, Jin. 2003. "A Qualitative Approach = Rethinking Public Library Director's Duties."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34(4): 253-270.
- [42] Korean Government Employees' Union National Assembly Library Branch, Korean Government Employees' Union National Assembly Secretariat Branch, 2003. *Stop Sharing Parachute Appointment of the Director of National Assembly Library between Parties, and Appoint the Director with an Open and Proper Process of Verification*. [online] [cited 2017. 7. 9.] <[http://seodaemungu.kegu.org/board/view.asp?number=2530&npart=A&ntext=&category\\_no=&club\\_no=&menu\\_no=&page=546&bID=GUD\\_201&norderby=bFref%20DESC,%20bFstep%20ASC](http://seodaemungu.kegu.org/board/view.asp?number=2530&npart=A&ntext=&category_no=&club_no=&menu_no=&page=546&bID=GUD_201&norderby=bFref%20DESC,%20bFstep%20ASC)>
- [43] Jeon, Seonguk. 2014. "Analysis on Legislative Process of Basic Pension Act." *Korean Journal of Policy Analysis and Evaluation*, 24(4): 119-151.
- [44] Chon, Young-Ok. 2016. "Applying the Multiple Stream Framework to the Policy Formulation of Student Rights in Local Government." *Korean Journal of Local Government & Administration Studies*, 30(2): 181-203.
- [45] Jeong, Ucheol and Woo, Changbin. 2015. "An Analysis of Policy Process with Revised Multiple Streams Model: With Reference to the Policy Changes of Dementia Rating Systems." *The Korea Association for Policy Studies*, 24(3): 437-469.
- [46] Jung, Hyun-Tae. 2004. "A Comparative Study on the Job Performance Between Librarian Director and Non-librarian Director in Public Libraries."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35(1): 119-133.
- [47] "Juyogigwan Silloedo, Geomchal Ttodasi Choehawi." 2014. *Realmeter*. August 29. [online] [cited 2017. 6. 24.] <<http://www.realmeter.net/2014/08/주요기관-신뢰도-검찰-또다시-취하위>>
- [48] Ji, Eun-jeong. 2016. "Policy Changes to Senior Job Programs from the perspective of the Multiple Streams Model." *Korean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54(3): 225-268.
- [49] Choi, Seongrak and Park, Minjeong. 2012. "The Study about Exactness of Kingdon's Policy Stream Model." *Korean Policy Research*, 12(1): 119-137.

- [50] Chu, Yoonmi and Kim, Giyeong. 2013. "An Analysis of the Policy Making Process of Gyeonggido Cyber Library Establishment: Based on the Policy Streams Model of Kingdon." *Journal of the Korea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30(3): 71-87.